

2024.3.29.(금)

현시정보

상해주재원

제목

최근 중국의 결제 편리성 제고 조치

◆ 최근 인민은행은 모바일 결제 증가에 따른 **디지털 격차 해소, 금융 포용성 향상 및 결제편리성 제고**를 위한 조치를 발표

○ 현금 및 직불카드 등 전통적인 결제방식의 유지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**방중 외국인의 모바일 지급결제 한도를 확대**

■ 방중 외국인의 모바일 결제 한도는 **단일 거래시는 \$1천에서 \$5천로, 연간 누적 한도는 \$1만에서 \$5만으로 확대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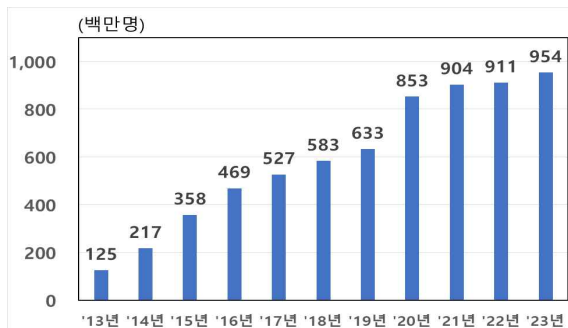
□ 중국은 **지난 10년간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**하면서 다른 지급수단에 비해 **모바일 결제가 보편화**된 상황

○ 모바일 결제 이용자수는 2013년 1.3억 명에서 코로나 19 기간인 2021년 9억 명을 넘어섰으며 지난해 기준 9.5억 명 수준에 도달

○ 또한 중국의 모바일 결제보급률(온/오프라인 결제시 모바일결제 이용률)도 38.3%(2023년 기준)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결제가 보편화된 상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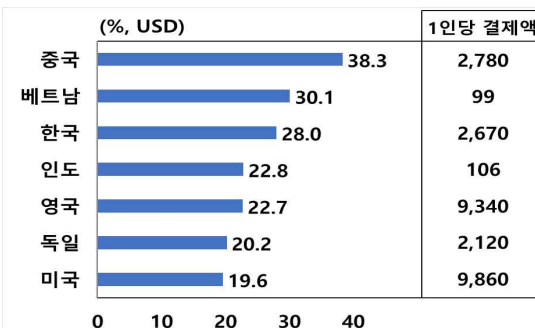
■ 2023년중 1인당 모바일 결제액도 2,780달러에 이르러 중국의 1인당 GDP(2022년 기준 12,720달러) 규모를 감안할 때 높은 수준

중국의 연간 모바일 결제 이용자수¹⁾



주 : 1) 연간 1회 이상 모바일 결제 이용자
자료 : Statista

주요국 모바일 결제 보급률 및 결제액¹⁾



주 : 1) 2023년 스마트폰을 이용한 1인당 결제액
자료: Statista

□ 그러나 모바일 결제가 보편화되면서 **모바일 결제에 익숙하지 않은 노령층**이나 **현지 은행계좌 개설이 어려운 방중 외국인들**에게는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여 **디지털 격차가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**

○ 인민은행은 지난해 7월 청두 유니버시아드 대회 이후 관광 및 비즈니스 등의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이 중국에서 모바일 결제시 겪는 문제점* 등을 점검

* “①不能用, ②不好用, ③不想用” : ①해외카드와 연계가 잘 되지 않고, ②일정 금액 이상은 결제가 되지 않아 불편하고, ③이로 인해 사용하고 싶지 않음

□ 이에 인민은행은 최근 **금융포용성 향상을 위해 현금 및 직불카드 등 전통 결제방식을 유지하는 방안**을 마련하는 동시에 방중 외국인의 **결제 인증절차 간소화** 및 **외국인 거래 한도 확대 등의 조치**를 발표*

* 「국무원 정책에 대한 정기보고회」(3.1일)에서 결제시스템의 품질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노력 공표, 「금융기관 결제 서비스 최적화 추진 회의」 개최(3.15일), 「방중 외국인에 대한 결제 지침」(Guide to Payment Services in China) 발표(3.14일)

○ 금융포용성 향상을 위해 공공요금, 쇼핑물, 의료 및 기타 주요 편의 시설에서 현금* 및 은행카드 등 전통 결제에 필요한 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급결제에 대한 연령별 맞춤교육 및 홍보 실시**

* 인민폐 현금 수납 거부에 대해 경고조치 등 특별 시정작업 추진

** 통신사기 예방 등 보안 지식을 대중화하여 노령층 예금 보호

○ 또한 방중 외국인에 대한 결제 편리성 제고를 위해 알리페이와 위챗을 통한 모바일 결제시 해외카드와의 결합 효율성을 높이고 인증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단일 거래 및 연간 모바일 결제 한도를 확대

■ **방중 외국인의 모바일 결제 한도는 단일 거래시는 \$1천에서 \$5천로, 연간 누적 한도는 \$1만에서 \$5만으로 확대**